“한국불교 전통 법음 향연…수계 통해 성찰·치유”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이 행사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리 만나는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Interview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서

태고종도·시민 1만 명 참여 예정

종정 운경 대종사 등 증명 참석

전계대화상에 율사 수진 스님

7개국 선지식 칠증사 동참 수계

“지친 국민에게 위로의 장 될 것”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는 태고종을 대표하는 불교의례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매년 서울시와 함께 영산재를 봉행하며 국태민안과 국민화합을 기원해 왔다.

올해 태고종은 영산재와 더불어 조금 더 특별한 법석을 펼친다. 오는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다. 지난 10월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법석의 원만 진행을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태고종도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법석은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 봉행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허 스님(태고전승문화사업단장)에게 법회 준비 상황과 진행 계획 등을 들었다. 다음은 스님과의 일문일답.

Q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A. 이번 법회는 전국 태고종도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영남, 호남 등 먼 지역의 교구 종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중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만큼은 오랜만에 종단이 함께하는 대법회로 많은 이들이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명 가량이 법회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이번 대법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A. 우선 태고종 종조인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지난 20여 년간 태고종은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대내외 신뢰가 떨어진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취임한 이후 2년 동안 종단은 안정화와 발전의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총무원장 스님의 발원과 원력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종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단 위상 변화와 발전 방향을 보여 주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Q 앞선 간담회에서 상진 스님께서 종사이운 의식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식이며, 법회 당일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됩니까?

A. 종사이운은 법회에서 가장 장엄한 의식으로 종정예하와 율사, 국내외 증사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의식입니다. 불교 취타대의 행진과 함께 스님들이 입장하며, 그 자체로 하나의 불교문화 예술입니다.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봐도 경건하고 감동적인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전체 행사 구성이 궁금합니다.

A.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는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종사이운으로 시작해 법어와 본식, 수계의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계의식 후에는 국가지정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영산재가 설행됩니다.

영산재는 본래 도량의 마당에서 펼치는 대형 불교의례입니다. 여기에는 음악·무용·공예 등이 어우러져 있어 불교종합예술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이번에는 영산재의 진수만 모아 공연 형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영산재 후에는 문화축제가 펼쳐지며, 행사장에는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됩니다.

Q 올해에는 국제수계대법회가 함께 진행됩니다.

A. 이번 법회는 국내외 선지식과 태고종도, 국내외 불자, 시민, 다문화 가족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적 법석이 될 예정입니다. 해동율맥 수진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이 갈마아사리를, 호법원장 구산 스님이 교수아사리로 참여하며 증명으로는 종정 운경 스님, 승정원장 금용 스님, 원로의장 호명 스님이 증참하십니다.

또한 수계법회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과 태국, 스리랑카, 베트남, 북미 등 7개국에서 방한한 스님들이 칠증사로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해외 스님으로는 △나냐난다 스님(스리랑카) △랏끼차폰 스님(태국) △난 다카 스님(미얀마) △틱하이안 스님(베트남) △쿤상 도제 라마 스님(네팔) △법미 스님(태고종 미주-유럽 교구장) △계륭 스님(중국) 등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인망이 두터운 선지식들입니다.

이에 따라 법회에는 국내의 다문화 가정 구성원, 이주노동자, 귀화 불자 등 약 1000명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한국 내 법당 공동체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Q 일반인도 수계법회에 동참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태고종도, 불자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종단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수계입니다. 이는 자기 정화와 치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에 원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과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A. 이번 행사는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전하기 위한 장입니다. 광화문에서 열리는 영산재와 수계대법회를 통해 마음의 정화와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지나가다 잠시 들러 법음(法音)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한순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